

(5) 영화

독일의 2013년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1.8% 증가한 37억 9,8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였다. 박스오피스 수익증가는 미국 영화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, 독일영화도 상당수 선전하여 2002년 대비 26.2% 증가했다.

한편,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유통의 확산에 따라 홈비디오 대여시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, 전반적으로는 디지털배급의 빠른 성장률 덕분에 향후 5년간 3.3%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에는 44억 7,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[표 4-9] 독일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, 2009-2018

[단위 : 백만 달러,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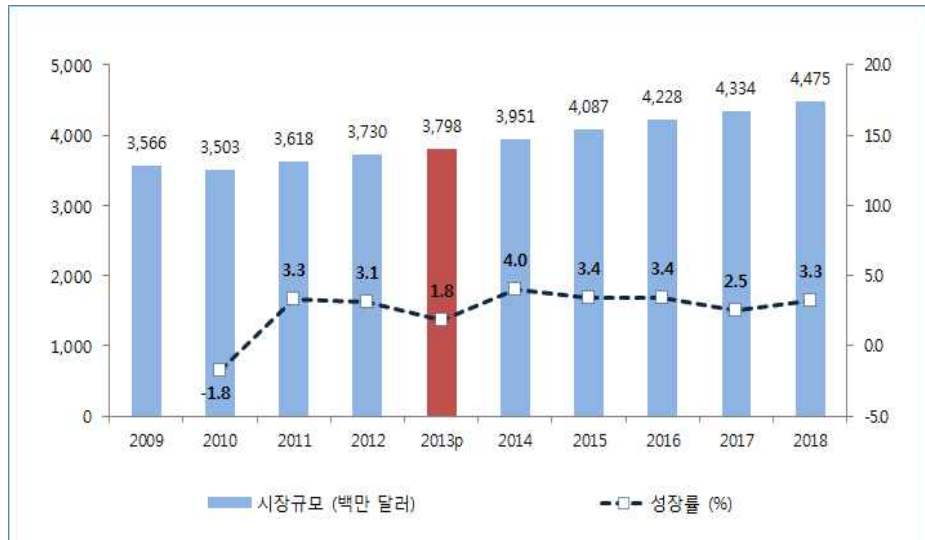
구분	2009	2010	2011	2012	2013p	2014	2015	2016	2017	2018	2013-18 CAGR
극장	1,380	1,311	1,374	1,477	1,467	1,526	1,559	1,604	1,640	1,679	2.7
박스 오피스	1,286	1,213	1,262	1,361	1,346	1,399	1,426	1,464	1,493	1,526	2.5

[단위 : 백만 달러, %]

구분	2009	2010	2011	2012	2013p	2014	2015	2016	2017	2018	2013-18 CAGR
극장광고	94	98	112	116	121	126	133	140	146	153	4.9
홈비디오	2,158	2,136	2,141	2,091	2,100	2,099	2,094	2,074	2,020	1,971	△1.3
대여	338	317	304	292	276	257	239	221	204	187	△7.5
판매	1,819	1,819	1,837	1,798	1,824	1,841	1,855	1,853	1,816	1,784	△0.4
디지털 배급	28	57	103	162	231	327	433	550	674	826	29.1
OTT/스트리밍	20	37	58	101	134	178	228	276	332	389	23.7
TV 구독	8	20	45	61	96	149	206	274	342	436	35.3
합계	3,566	3,503	3,618	3,730	3,798	3,951	4,087	4,228	4,334	4,475	3.3

출처 : PwC(2014)

[그림 4-24] 독일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, 2009 - 2018



출처 : PwC(2014)

2009년 독일 영화시장의 51.0%를 차지하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던 홈비디오 판매시장은 최근 디지털배급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2013년에는 48.0% 수준까지 축소되었다. 디지털배급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향후 5년간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, 독일 영화시장에서 홈비디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제1절

1. 영국

2. 프랑스

3. 독일

4. 스페인

5. 러시아

6. 이탈리아

7. 스웨덴

8. 터키

9. 중동·아프리카

[그림 4-25] 독일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, 2009 vs. 2013 vs. 20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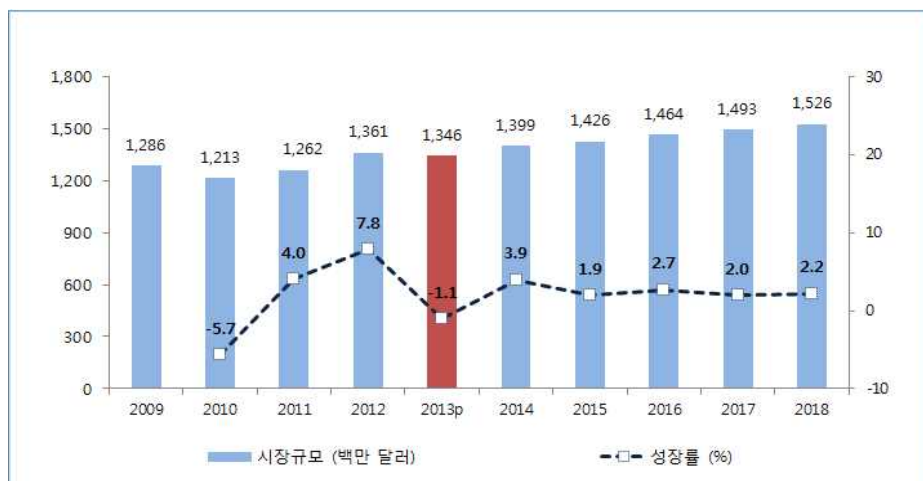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PwC(2014)

가. 박스오피스

독일의 박스오피스시장에서는 미국 영화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자국 영화의 시장점유율도 26.2%를 기록하며 선전했지만, 전체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.1% 감소한 13억 4,6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.

[그림 4-26] 독일 박스오피스시장 규모 및 성장률, 2009 - 2018



출처 : PwC(2014)

제1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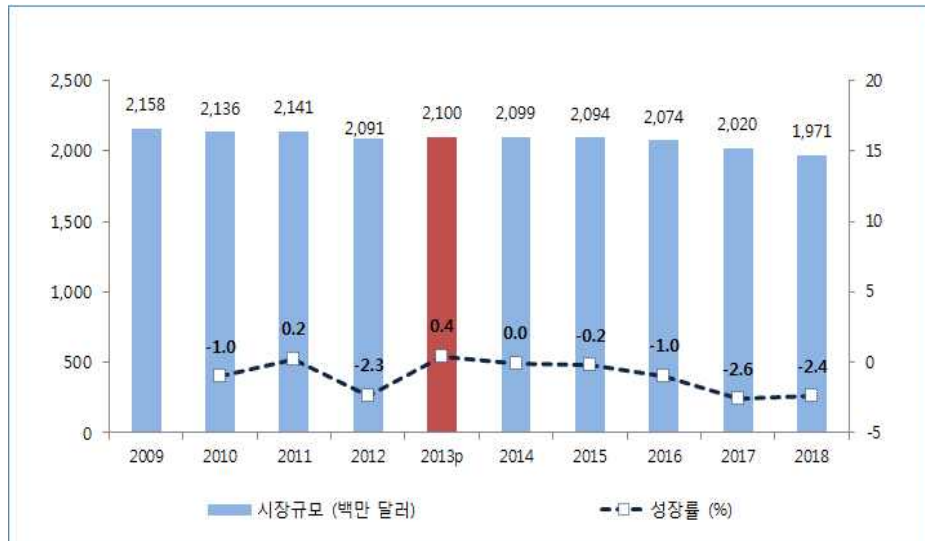
- 1. 영국
- 2. 프랑스
- 3. 독일
- 4. 스페인
- 5. 러시아
- 6. 이탈리아
- 7. 스웨덴
- 8. 터키
- 9. 중동 아프리카

영화 관람객 수가 약간 감소한 대신 영화 티켓 가격이 소폭 인상되면서 영화관 수익이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. 독일의 박스오피스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.5%의 성장률을 보이며, 2018년까지 15억 2,6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나. 홈비디오

독일 영화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홈비디오시장은 전년대비 0.4% 증가한 21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. 하지만 인터넷 디지털 유통망이 확충됨에 따라, 시장 규모는 향후 연간 1.3%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19억 7,100만 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

[그림 4-27] 독일 홈비디오시장 규모 및 성장률, 2009 - 2018



출처 : PwC(20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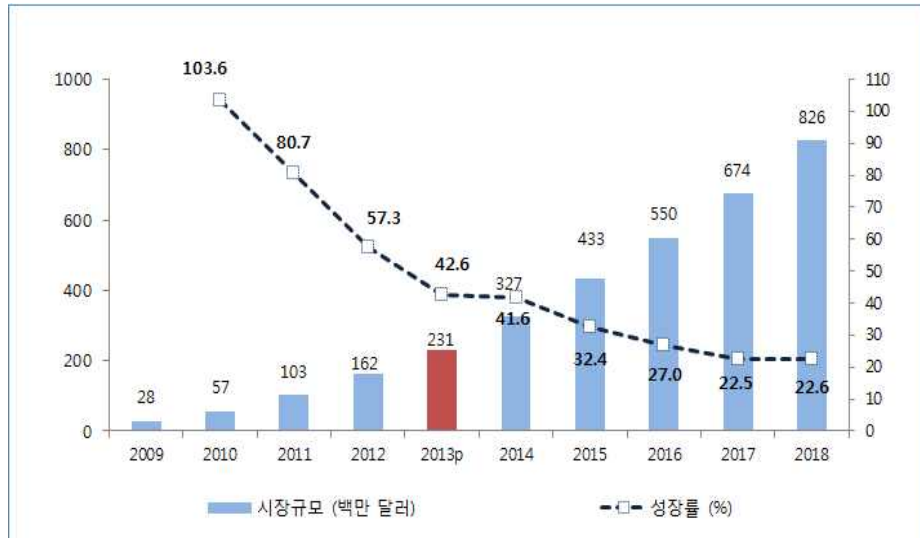
다. 디지털배급

2013년 기준 독일의 디지털배급시장의 규모는 2억 3,100만 달러의 규모로 전체 영화시장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, 현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.

넷플릭스(Netflix)가 독일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에는 여러 다양한 VOD 및 SVOD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2013년 말에는 독일의 유료TV 플랫폼인 스카이 도이칠란드(Sky Deutschland)가 새로운 VOD 서비스인 스냅(Snap)을 개시했다. 다양한 서비스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하며 향후 연평균 29.1%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,

2018년까지 독일의 디지털배급시장은 현재 규모의 3.5배에 달하는 8억 2,600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

[그림 4-28] 독일 디지털배급시장 규모 및 성장률, 2009 - 2018



출처 : PwC(2014)